

새정치 현역의원 20% 물갈이 시작...호남 3~5명 탈락 예상

14일부터 공천평가...선거구별 700명 전화 여론조사

비주류 호남의원들 “깜깜이 평가기준이 문제” 불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분당·탈당 위기감 속에 현역 국회의원 20%를 공천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는 선출직공직자평가(이하 평가위)의 평가도 속도를 내고 있어 당내 의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평가위는 전국 지역위원회 당무감사 결과를 넘겨받는데 이어 지난 9일까지 현역 국회의원들로부터 공약 이행 및 지역 활동 자료를 제출받았다. 평가위는 이를 토대

로 오는 14일부터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정 활동과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를 시작한다.

이와 함께 평가위는 이번 주부터 삼임위와 선수별도 의원들을 상호 평가하는 다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 주말부터는 전체 평가에서 35%를 차지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여론조사는 전화 면접방식으로 700명

샘플이 기준이며, 재출마시 지지도 및 비지지도, 후보자 지지도 및 정당 지지도 등을 묻는다. 여론조사 실시 시기는 경쟁 후보자 및 신당 후보자들의 역선택과 현역 국회의원 측의 조직을 동원한 전화 대기 등을 고려,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고 있다.

당일 평가위원장이 여론조사 실시 지역을 여론조사 업체에 통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평가위의 최종 결과가 늦어질수록 다음 달 중순까지는 나와야한다는 점에서 이른 오는 18일부터는 여론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평가위의 평가가 마무리되면 새정치연

합 현역 국회의원 127명 가운데 하위 20%인 25명 정도가 평가를 통해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된다.

김성곤, 신학용, 박기춘, 김재윤 의원 등 당내에서 5~6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내년 총선 출마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한다면 20명 내외가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호남지역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의 불안감이 높다.

비주류 성향 의원들이 많은데다 정치적 뒷받침이라는 점에서 불이익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호남에서 최소한 3명, 많으면 5명 이상이 평가위의

뜻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전남도당위원장인 황주홍 의원과 전북도당위원장인 유성열 의원은 당무감사와 평가위의 자료제출을 거부한 상황이고, 평가위 평가 기준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당장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다면평가와 관련, 계파간의 이해 관계가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주류 특정 인사에 대해 주류 진영에서 담합, 최하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류 성향이 강한 당직자들의 평가도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여론조사도 지역별로 정당 지지

율 등 정치적 특성이 제각각인데다 타 정당이나 경쟁 예비후보자들의 조직적 역선택도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지역 모 의원은 “전남의 경우, 광주보다 당 지지율이 높지만 평가위에서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며 “나름대로 최선의 의정활동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평가위의 깜깜이 평가에 불안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현역의원 평가는 ▲의정 활동 및 공약이행 35% ▲선거기여도 10% ▲지역 활동 10% ▲다면평가 10% ▲여론조사 35% 등으로 이뤄진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표정도 마음도 제각각 9일 국회본회의장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왼쪽)가 회의자료를 살펴보고 있고 최고위원을 사퇴한 주승용 의원(오른쪽 두번째)과 정청래 최고위원이 얼굴에 손을 대고 앉아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 ‘文·安 비상지도체제’ 제안

수도권 의원 64명중 40여명 서명...안철수 前 대표 측 일단 반대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내분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의원들이 10일 막판 중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수도권 의원들은 전날부터 문·안(문재인·안철수) 공동책임 하의 비상지도체제를 출범하고 최고위 권한을 여기에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마련해 서명을 받았다.

중재안에는 문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전제로 ▲문 대표-안 전 대표가 전·현직 당대표로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문 대표-안 전 대표가 마련한 각각의 혁신안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문 대표-안 전 대표를 공동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가 구성돼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문 대표가 제안한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연대’에 비해 안 전 대표가 지도부 구성권을 좀더 강력하게 행사하고, 문 대표가 사퇴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

서 안 전 대표의 입장을 고려했다는 것이 수도권 의원들의 설명이다.

또 문 대표는 당대표직에서 일단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하긴 하지만 지도부 구성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지키고자 한 ‘문재인표 혁신안’을 관철할 여지도 충분히 남겼다.

서명에는 수도권 의원 64명 중 4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김상희·윤관석·박홍근 의원은 이날 오전 문 대표를 만나 중재안을 설명하면서 문 대표의 대승적 결단을 호소했다. 문 대표는 “안 전 대표와 함께 가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안 전 대표에게도 중재안을 전달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해둔 상태다.

안 전 대표는 나흘째 공식 일정을 접지 않은 채 칩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안 전 대표 주변에서는 수용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기류가 강하다. ‘문·안·박 연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만 빠진 변형이라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문 대표가 내려놓는 것이 없이 비대위원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문·안·박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며 “기득권 내려놓기라는 전제가 안 돼 있는데다 통합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문병호 의원은 BBS 라디오에 나와 “지금 문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공동비대위원장을 맡는 안을 선호한다고 한다. 단 1초도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다”며 “문 대표가 며칠만이라도 물러나고 비대위에서 문·안을 모시자고 해서 (비대위를) 만드는 것은 검토할 수 있는 안”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철수 호남 지지율 2배 상승

문재인 전국 지지율 2.5%p 하락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반면 문 대표에게 반발하며 집계에 돌입한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대표의 지지율 상승은 호남에서 두드러졌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0일 발표한 주중 중간집계(7~9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주보다 1.9%p 상승한 22.5%로 1위를 지켰다.

문 대표의 경우 당 비주류의 탈당과 당직 사퇴, 안 의원의 반발 등 당내 내용 사태가 겹치며 2.5%p 하락한 16.1%를 보였다. 두 사람 간의 지지율 격차는 6.4%p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0.2%p 상승한 12.5%였다.

문 대표에게 통합 전당대회 개최를 요구한 뒤 장교에 들어간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8%p 오른 11.1%로 두자리수 지지율을 회복했다. 안 의원에 이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 4.8%로 4위,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가 3.8%로 5위에 올랐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1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안 의원의 호남 지지율이 지난주 13.9%에서 28.5%로 2배 가까이 높아졌다”며 “박 시장의 호남 지지율이 24.3%에서 15.8%로 8.5%p 하락했는데 박 시장의 지지층이 안 의원에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문 대표의 호남 지지율은 14.2%로 3위에 머물렀다. /이종희기자 golee@kwangju.co.kr

문재인 대표 결단 촉구

최재천 정책위의장직 사퇴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10일 문재인 대표의 용퇴를 요구하며 정책위의장직을 사퇴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의 분열과 혼돈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그 누구도 예외될 수 없다”며 “대표성과 책임성은 비례한다”고 문 대표의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범주류 인사들이 최 정책위의장을 겨냥, “당무와 정책을 구분해 대어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며 “당을 흔들어서 안 된다”고 공격한 바 있다. 해남 출신의 최 정책위의장은 이종걸 원내대표 취임과 맞물려 지난 7월 비주류 진영의 강력한 추천에 의해 임명됐다.

하지만, 최 정책위의장은 문 대표의 독단적 당 운영 등을 지적하며 그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로부터 당무를 거부했다. /임동욱기자 tuim@

봉선의 중심에서 봉선을 완성하다!

12월 11일 OPEN

프리미엄 명품 주거복합단지
봉선 HR아팰리스

청약금
100만원
청약자격 無



www.apalace.co.kr

EVENT 1
방문고객 대상 오픈 경품이벤트

- 1등 50" LED TV(1명)
- 2등 드럼세탁기 14kg(3명)
- 3등 전기우수메트(5명)
- 4등 자전거(10명)
- 5등 락앤락 3종 세트(15명)

추첨일: 12월 13일(일) 오후 4시

남구 청소년도서관(건립중)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마북동 164-22번지

봉선동 최고입지

남향주위 단지배치

시스템 에어컨 무상

중도금 무이자

무제한 전매

· 청약일정 : 12월 11일(금)~13일(일)
청약접수 : 모델하우스 현장접수

84㎡ A B C 문의 062)385-1035

세공사 HR산업개발 | 세공사 JY중우건설 | 연세 생보부동산신탁 | 분양업자 (주)신진이앤씨